

# KIA 좌완 김기훈 “궤도·체인지업으로 답 찾겠다”

직구 강점에도 제구 난조에 부침 겪어... 내년 1월 21일까지 호주리그 참가 “경험 쌓을 것”

KIA 타이거즈의 좌완 김기훈(사진)이 ‘궤도’와 ‘체인지업’으로 2024시즌 답을 찾는다. 김기훈이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다.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 참가했던 김기훈은 지난 17일에는 실전을 위해 호주로 떠났다. 김기훈은 캔버라 캐발리 소속으로 내년 1월 21일까지 이어지는 호주리그에 참가한다. 내야수 박민과 함께 투수 김현수·홍원빈이 지난 11월 17일 개막에 맞춰 호주리그에서 참여한 사이 김기훈은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워밍업을 했다. 정재훈, 이동걸 세 코치들과 제구 문제를 위한 답을 찾은 뒤 호주리그에서 그 결과를 시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무시무시한 직구를 가지고 김기훈은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기훈은 올 시즌 29경기에 나와 31.1이닝을 던지면서 2승을 올렸지만, 37개의 볼넷을 남기면서 4.6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김기훈은 “올 시즌 돌아보면 공을 던지는 것에 급했다. 욕심도 생기고 멘탈적인 부분 문제도 있었고, 밸런스를 유지 못 하면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릴리스 포인트가 왔다갔다 했다”며 “올 시즌 많이 아쉽기도 했고 더 준비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시즌 재도약을 위해 얻은 답은 ‘체인지업’과 ‘궤도’다. 김기훈은 “새로 오신 코치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것 많이 알려주셨다. 많이 배운 마무리 캠프였다. 배운 것을 신경 써서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며 “내가 가진 구종으로 타자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잘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신경 쓴 구종은 체인지업이다. 김기훈은 “올해 직구 비율이 높았다. 코치님께서 체인지업을 많이 써보라고 하셨다. 직구 궤도랑 똑같이 오다보니 타자를 공략하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캠프 때 체인지업을 많이 던졌다”며 “목표를 가지고 연습에 임하다 보니 몰입이 더 잘 됐다”고 언급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궤도’다. 김기훈은 “코치님께서 볼넷 신경 쓰지 말고 타자를 속일 수 있는 피칭 터널에 신경 쓰라고 하셨다. 모든 구종을 직구처럼 똑같은 궤도에서 떨어트리고 타자 눈을 속일 수 있는 궤도를 생각하면서 던졌는데 밸런스도 점차 맞아 가는 느낌이었다”며 “포수가 공을 잡는 시선에 집착을 한 것 같다고 코치님께서 말씀해주셨다. 많이 공감이 됐고,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구가 안 되니까 목표지점, 끝 지점만 생각하면서 던졌다. 포수라는 목표 지점만 생각했는데 코치님께서 타자들은 던지는 중간 지점에서 스트라이크인지 불인지 판단하고 스윙을 할 지 안 할 지 결정한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중간지점에서 타자 눈을 속여야 한다고 하셔서 궤도에 신경 썼다. 또 체인지업이 가다가 직구처럼 떨어지니까 그 장점을 극대화해보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간의 스트라이크가 아닌 타자와의 승부를 위해 ‘궤도’를 생각하면서 김기훈은 제구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김기훈은 “다트를 생각해보도 10점에만 던지는 게 아니라, 9점 8점도 생각하고 던지면 부담이 덜하다”며 “마무리캠프에서 준비한 것을 호주에서 마음 편하게 다 써보도록 하겠다. 힘 좋은 외국인 타자들 상대하면서 좋은 경험 쌓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도체육회, 2023 체육인의 밤 및 유공자 시상식

세계우수선수권 은메달 서희주 등 80명 전남체육회장상 수상 영예

2023년 한 해 전남체육을 빛낸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새출발을 다짐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9일 '2023 체육인의 밤 및 유공자 시상식'을 목포 남악 스키아레나컨벤션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시군체육회 관계자, 체육지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전남체육의 한 해간 활약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전남 체육진흥 및 발전 유공 체육인에 대한 표창식이 진행됐다. 총 80명에게 전남체육회장상이 수여됐고 지난날 제16회 세계우수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전남우수협회 서희주를 비롯해 순천제일고 배구부 김남중 감독, 곡성군체육회 배진숙 지도자, 담양군 배드민턴협회 정을석 회장 등 5명이 대표로 시상대에 올랐다. 광양시체육회 김용서 회장, 장흥군체육회 정성인 회장, 전남도체육회 문영준 이사, 전남주곡협회 이경희 이사, 전남양구협회 정규민 지도자 등 52명



19일 열린 '2023 체육인의 밤 및 유공자 시상식'에서 전남도체육회장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우수 서희주, 순천제일고 배구부 김남중 감독, 담양군배드민턴협회 정을석 회장, 곡성군체육회 배진숙 지도자, 완도체육협회 신홍현 부회장) 예에는 도지사 표창이 이뤄졌다. 5명은 도교육감 표창을 받았고 전남탁구협회 박종업 사무국장, 전남농구협회 김민승 전무이사, 전남배드민턴협회 김동현 전무이사, 전남체육회 박나영 대리가 대표 수상자로 자리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내년과 내후년에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도 성공개최를 위해 모두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야 기자 jinggi@kwangju.co.kr



“필승! 2024 파리 올림픽” 19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대한체육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륜기 형태를 만들며 2024년 파리 올림픽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정후 ‘MLB 팀 후보 10인’에 포함될 것”

MLB닷컴, 콘택트 능력·선구안 장점으로 꼽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정후(25)와 6년 1억1300만 달러(약 1469억원)의 대형 계약을 한 뒤 콘택트 능력과 선구안을 ‘메이저리그(MLB)에서도 통할’ 이정후의 장점으로 꼽았다. 근거는 놀라운 삼진/볼넷 비율이었다. 미국 현지 언론도 삼진/볼넷 비율을 근거로 이정후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연착륙을 예상한다. MLB닷컴은 18일 ‘2024년 올 MLB 팀에 선정될만한 선수 10명’을 꼽으며, 이정후도 호명했다. 올 MLB팀은 온라인 팬 투표 50%와 미디어 종사자·구단 관계자·전직 선수로 꾸려진 패널의 투표 50%를 합쳐 결정한다. 2017년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정후는 올해까지 88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40, 65홈런, 515타점, 69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898을 기록했다. KBO리그 3000 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 중 최고 타율을 자랑한다. 올해에는 발목 부상 탓에 86경기에만 출전했다. 2023년 성적은 타율 0.318, 6홈런, 45타점, OPS 0.861이다. MLB닷컴은 발목 부상으로 인한 이정후의 장타율 하락이 MLB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곧 MLB닷컴은 “이정후는 공을 맞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라운드 모든 곳에 공을 보내

는 능력은 외야가 비대칭인 오라클파크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정후는 25세로 젊고, 수비도 뛰어나다”고 이정후의 장점을 나열했다.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뛰어난 야구 행동을 지닌 선수”라며 이정후의 아버지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가 한국 야구의 레전드였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정후의 장점을 소개할 때 ‘콘택트 능력’을 먼저 내세운다. 이정후는 KBO리그에서 3000타석 이상 들어선 선수 중 가장 높은 타율 0.340을 기록했다. 볼넷 383개를 얻는 동안 삼진은 304개만 당했다. 파르한 자이디 샌프란시스코 야구 부문 사장은 “이정후에게는 상대 투수의 구종을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며 “이런 특별한 기술은 분명히 MLB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SPN은 “최근 2년 동안 이정후의 삼진 비율은 5.4%에 불과했다. 2023년 KBO리그 평균 18.2%, 메이저리그 22.7%보다 훨씬 좋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KBO리그에서 이정후는 ‘자신만의 존’을 설정하고 스윙을 아꼈다. 삼진과 헛스윙 비율이 낮은 배경이었다. 또 ‘예상하지 못한 공’이 날아올 때 놀라운 신체 능력으로 공을 배트에 맞는 진기한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이정후는 공을 선별하는 ‘눈’과 공을 따라가는 ‘손’을 모두 활용해 비록 리그 연착륙을 노린다. /연합뉴스

## 한국 야구 세계 랭킹 4위로 시즌 마감

한국 야구가 세계 랭킹 4위로 2023시즌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18일(현지시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발표한 남자 야구 세계랭킹에서 4353점을 기록, 4위에 랭크됐다. 지난 11월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일본이 총점 5797점으로 1위를 지켰고, 멕시코(4764점)와 미국(4492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우승을 다했던 대만은 4170점으로 한국에 이어 5위에 자리했다. 6-10위에는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가 자리했다. WBSC 세계랭킹은 WBSC가 주관하는 프리

미어12에 가장 많은 포인트(1위 1380점)가 배정되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승할 경우 1150점을 받는다. 또 연령별 야구 월드컵(우승팀 기준 345-690점), 아시안게임(1위 235점)을 통해서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순위 산정에는 WBSC U-15 야구월드컵 오세아니아 예선 결과도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3월 열린 WBC에서 1라운드 탈락으로 621점을 더하는 데 그쳤지만 10월 끝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235점을 얻었다. 또 9월 진행된 18세 이하 월드컵(3위)에서 418점을 획득, 4위로 올 시즌을 마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